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N세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권영승* · 이수정**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현재 'N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을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기존의 여론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 의식 및 정점, 담론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흔히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일종의 당위성이 내면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통일의 당위성이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차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다문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과거 세대보다 자신의 의식에 솔직하고 기존의 통일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북한을 단지 한반도 주변국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는 N세대의 등장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당위성에 의한 통일의식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여론조사와 같이 통계로 결과를 표출하는 양적 연구가 아닌, 개인의 의식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질적 연구는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솔직한 통일의식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N세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미 상당 부분 기존의 통일 당위성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민족적 감정이 아닌 통일 이후에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득실, 그리고 한반도의 발전 가능성 등 현실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여부를 사고하고 있었다. 즉, 이제 통일은 점차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실리의 관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이 글은 권영승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 북한학, agysba@gmail.com

** 북한대학원대학교, 인류학, lce.soojung@gmail.com

통일로 인한 한반도의 발전'이라는 담론으로 새로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N세대 대학생들은 통일의 실현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동반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거부감은 주로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에 닥쳐올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해에 대한 우려와 맞닿아 있으며, 결국 이러한 우려가 보다 자기주장에 솔직한 N세대들에게서 강하게 표출되면서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거부감 및 무관심이 증대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요어 N세대, 대학생, 통일의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N세대(Net-generation)'에 해당하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기존의 여론조사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면의식과 쟁점 및 합의점의 도출 과정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흔히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일종의 '당위성'이 각 개인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한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며, 통일은 꼭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 과제라는 당위적 의식은 통일의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종의 '조건 반사'적인 응답을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란 어휘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표면적 당위성과는 달리, 실제로 통일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때에는 통일의 실현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솔직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로는 우선 분단 이후부터 지속된 반공주의 혹은 반북주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북한을 '적'으로 인식시키는 반공교육은 국민들에게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정서를 내면화시켰으며, 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당위성과는 정반대의 반통일적인 담론이었다. 결국 남한 국민들에게 있어 통일은 '민족적 당위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로 다

가을 경우 꺼려지는' 상호 대비적인 가치관 및 의식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그동안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기본 토대는 합리적 사고가 아닌 정서적 당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권혁범, 2000: 105).

최근에는 통일의식이 더욱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 자체를 회의하는 구성원들이 생기고 있으며,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민족적 당위성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통일을 사고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병두, 2010: 357).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우선 '세월의 힘'을 들 수 있다. 현재 남한사회 인구의 대다수는 이미 분단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분단이 처음부터 일종의 삶의 조건이었으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정서적 열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다문화 현상은 이러한 통일의식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본과 사람과 문화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삶의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전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후진적'이고 '호전적'인 북한이라는 '타자'에 대한 양가적 감정과 상호작용하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심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이수정 2011). 그런데 글로벌·다문화 현상이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관심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심화된 경쟁과 정체성의 위기 등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역적 대응을 위한 터전 혹은 근거로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를 실리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관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디지털 매체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고 자라 인터넷에 익숙한 'N세대(Net-generation)'는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상징하는 세대로 논의되곤 한다. 현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이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릴 적부터 컴퓨터와 함께 자랐으며 따라서 전 지구적 네트워크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주화, 사회적으로 개방화가 추진된 시기에 성장하여 다원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었던 세대이다. 다른 한편 이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경제위기로 인해 초경쟁/저성장 시대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과거 기성세대들의 의식을 상당 부분 지배했던 반공 사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화해협력의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적대적 남북관계와 특히 2011년 당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과 같은 극도의 긴장상황을 경험하기도 한 세대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N세대는 연령적 특성으로 미루어 보건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담론의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남한 사회에서의 통일 담론 변화를 예측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안득기, 2007: 3). 그런데 설문지의 문항에서 ‘정답을 골라 적는’ 형태의 기존 통일의식 여론조사만으로는 통일과 관련된 이들의 솔직한 의식과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론조사와 같이 통계로 결과를 표출하는 양적 연구가 아닌, 개인의 의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질적 연구를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N세대에 속하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통일의식을 맥락화하여 파악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갖는 주된 특징인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토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간에 어떠한 의견의 교환과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2. 청년기의 특징 및 N세대의 통일의식

칼 만하임(K. Mannheim)은 세대를 ‘청소년기에 어떠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문화·의식·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출생코호트’로 정의한 바 있다(1952: 351-399). 대략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청년기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의식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시기를 일종의 세대 형성기로 규정한 슈만과 스코트(H. Schuman

& J. Scott) 역시 이와 관련하여 청년 세대의 특징과 관련한 연구를 행한 바 있다(1989: 843-861). 그들은 18세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지난 50년간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변동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기록하게 했는데, 코호트 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집합적 기억들(Collective memories)'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과 사회변동들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기의 경험이 한 개인의 의식 형성의 기반이 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의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만하임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박재홍, 2001: 59-60). 결국 세대 이론에서 청년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 및 의식이 향후 일어나게 될 모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 세대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N세대'이다. N세대란 용어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돈 탭스콧(D. Tapscott)이 1998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탭스콧은 N 세대가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자나 소비자에 머물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경향이 있고,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토론과 교류, 협업을 즐기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구분된다고 한다. 그 밖에도 다수의 연구는 N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세대차이나 세대갈등을 설명하는 주요한 틀로 활용하곤 한다(이창식, 2002).

남한사회에서 세대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현재의 청소년들과 대학생 집단을 N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화가 그 어떤 국가보다 급격하게 진전된 한국 사회에서 N세대의 등장은 특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세대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2002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참여와 네트워크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길목에서 이들을 중요한 사회적 세력으로 인식되게끔 하였던 것이다(정승호, 2003: 399).

한국의 N세대는 한국 사회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 태어나 자랐으며, 또한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 사회적으로 개방화를 통한 다원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시기에 성장한 세대이다(박길성, 2002: 303).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2000년의 6.15정상회담과 햇볕정책 등 남북관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었던 시기에 청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러한 대북 정책노선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시기를 거친 뒤 과거와 대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대학에 입학한 세대들로서 그 이전 시대에 비하여 보다 진전되고 다양한 담론들을 성장기에 접한 세대이다(안득기, 2009). 즉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보다 다양한 담론의 수용과 급변하는 정세,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과거의 반공교육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북한 및 통일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나 직접적인 관심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성장한 세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가치관 및 의식은 대부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된 채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전쟁이나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한 체감 역시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다(박명규, 2009).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민주화를 이뤄내었던 이전 세대들에 비하여,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2008년 실시되었던 청소년 통일의식 설문조사는 이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데, 조사 결과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6%였으며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문국현, 2008: 5).

즉 N세대는 과거 세대와는 달리 북한을 한반도 주변국들 중의 하나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보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세대적 특징을 보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던 통일에 대한 무비판적인 당위성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차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 연구가 진행된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남북한 관계 관련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한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

치고 있을 때이다. 따라서 이 글은 앞서 논의한 N세대의 세대적 특징을 고려하는 동시에, 2010년의 남북한 갈등 상황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N세대의 통일과 관련된 주된 의식은 향후 남한 사회에서 나타날 통일의식의 변화와 사회변동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터뷰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토의방식이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포커스 그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토의 주제를 제공한 뒤 구성원들의 토의 속에서 상호작용을 관찰, 기록하여 분석하게 된다(윤택림, 2004: 81). 이때 연구자는 질문을 제공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중재자(moderator)의 역할을 하게 되고, 토의의 결과는 녹취록으로 남게 된다.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비형식적인 소그룹 인터뷰와는 달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의견을 관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특정한 결과의 도출을 유도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참여자들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견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면담보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특정한 합의점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는 본래 라자스펠트(P. Lazarsfeld)에 의하여 마케팅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포커스 그룹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 있

는 선택되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토의'라 정의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사회과학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마케팅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한정된 연구목적이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윤택림, 2004). 즉 마케팅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과학의 경우 연구의 결과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파악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대로 단순한 설문응답이 갖는 당위적 의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N세대에 속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의식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다. 서울시 내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출신지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내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년과 성별, 그리고 친밀도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친분 관계가 있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의 연합동아리 구성원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특별

표 1. 포커스 그룹 구성원 - Group A

이름	코드	성별	연령	학교	학년	학과
박XX	A-M1	남	26	H대학	4	경제학과
반XX	A-M2	남	25	H대학	3	경영학과
황XX	A-M3	남	25	H대학	3	일본어과
김XX	A-M4	남	23	H대학	3	경영학과
장XX	A-F1	여	22	H대학	3	법학과
홍XX	A-F2	여	22	H대학	3	영어학과
권XX	A-F3	여	21	H대학	2	중국어과

표 2. 포커스 그룹 구성원 - Group B

이름	코드	성별	연령	학교	학년	학과
한XX	B-M1	남	25	D대학	4	교육학과
오XX	B-M2	남	25	D대학	3	정치외교학과
강XX	B-M3	남	24	D대학	2	교육학과
박XX	B-F1	여	26	S대학	4	컴퓨터정보학과
최XX	B-F2	여	25	S대학	4	정치외교학과
최XX	B-F3	여	25	S대학	3	중어중문학과

표 3. 포커스 그룹 구성원 - Group C

이름	코드	성별	연령	학교	학년	학과
정XX	C-M1	남	26	D대학	4	법학과
이XX	C-M2	남	26	D대학	4	법학과
조XX	C-M3	남	25	D대학	3	법학과
송XX	C-M4	남	22	S대학	2	철학과
남XX	C-F1	여	23	S대학	3	중어중문학과
김XX	C-F2	여	23	S대학	3	법학과
황XX	C-F3	여	22	S대학	3	법학과
안XX	C-F4	여	22	S대학	3	법학과

한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아리가 아닌 친목 위주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구성원들을 섭외함으로써, 동아리라는 하나의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특수성에 치우치지 않는 동시에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령이나 학과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성별의 비율은 각 그룹별로 균등하게 설정하였으며 학년과 나이 역시 최대한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설정하여 세 개의 그룹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각 그룹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각 그룹의 인원은 6~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 하순까지 그룹 배정의 순서대로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각 그룹의 구성원들에게는 성별을 기준으로 한 개인 코드를 부여하여 분석할 때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고유한 절차에 따라 연구내용을 개념화하고 질문을 개발하는 연구 계획 단계,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 포커스 진행 그룹 단계, 분석 단계, 보고서 작성 단계로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포커스 그룹을 이용한 연구는 해당 연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대화체의 질문으로 만들어 준비된 순서에 따라 참여자에게 질문하고 토의하도록 하는 세부질문 작성법(questioning route)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할 주요 설문 문항의 구성으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주요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추출한 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원칙에 맞게끔 대화체의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수정하여 예상 질문을 선정하였다.

예상 질문은 통일에 대한 의식, 북한에 대한 의식으로 나누어 이를 주요 분류로 하였으며, 이를 총 7가지의 세부 분류로 나누어 이와 관련된 대화체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예상 질문의 구성은 표 4와 같다.¹

표 4. 예상 질문

주요 분류	세부 분류	질문내용
1. 통일에 대한 의식	1) 통일의 필요성 및 이유	“한반도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원하는 통일의 시기	“한반도에서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3) 통일 형태의 예측	“향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나요?”
	4) 통일 이후의 변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2. 북한에 대한 의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머릿속에서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2) 북한의 변화 여부	“북한이 이전보다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3)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권영승의 석사논문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통일의식과 북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만 포함하였다.

4) 자료 분석

인터뷰의 진행 이후,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Krueger(1998)가 제안하는 포커스 그룹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시행하였다(김성재, 2000: 161). 연구자는 우선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자료 전체를 코딩(coding)한 뒤, 자료 속에서 특정한 현상이나 개념이 나타나면 이름을 붙이고 이 명명한 이름이 다시 나타나면 같은 이름을 붙이는 작업인 오픈 코딩(open coding)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오픈 코딩 작업 중에 진행된 토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특정한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 분석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대학원에서 북한을 전공한 다른 분석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코딩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서로의 분석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1차 코드북(codebook)을 작성하였으며, 연구자는 1차 코드북을 읽으며 1차 코딩 자료들을 주제별로 묶고 의미들을 심화시키는 작업을 거쳐 2차 코드북(codebook)을 작성하였다.

4. 토의 결과

1) 통일에 대한 의식

(1) 통일의 필요성 및 이유

연구자 질문: “한반도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 주요 응답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세 그룹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많았다.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A그룹에서 한 명, C그룹에서 두 명 등

표 5. 그룹 별 반응 빈도 - 통일의 필요성 및 이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한반도의 발전 측면	안보적 측면	민족적 당위	기타 응답	
Group A(7명)	○○○	○○		○	○
Group B(6명)	○○○	○○	○		
Group C(8명)	○○○	○	○	○	○○

전체 21명 중 3명에 불과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이유에서는 한반도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세 그룹 모두 3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통일이 되면 국력의 향상과 경제적 환경의 개선, 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한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 남한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두 나라가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A-M2).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면 내수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큰 발전을 보일 것이라 생각해요(B-M3).

분단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국력 낭비의 해소를 통일의 이유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각 그룹별로 1~2명 정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나 국력 소모의 해소를 주로 언급하였으며,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극과 불필요한 충돌이 사라지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다.

분단 때문에 계속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계속해서 도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인명 피해도 자꾸 생기고요. 또 분단 때문에 소모되는 군사적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A-F2).

더 이상 최소한 분단으로 인해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통일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봐요(B-M1).

같은 민족이라는 통일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당위적 측면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역사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바라본 의견과, 민족의 자주성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한 응답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짧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엄연한 하나의 민족이고, 특히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 가면서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분단이 된 것은 그분들이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A-F1).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의 응답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에 통일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서로가 너무나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합쳐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A-M4).

나. 결과 분석

통일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첫 번째 토의에서는 통일이 한반도에 필요한 것이며,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였는데,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선진화의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바라본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을 현실적으로 한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기존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통일에 대한 민족적

당위성에서 이미 상당 부분 벗어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민족적 당위와 관련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한 응답은 전 그룹을 통틀어 단 2회에 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의 인터뷰 진행 과정의 곳곳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분단으로 인한 불안과 국력 낭비 등을 지적하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터뷰 시점에서의 불안한 한반도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 토의에서는 주제의 특성상 학생들이 가진 개별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여 상호 간에 특별한 쟁점이 발생하거나 합의점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하지만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각자 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족적 당위와 관련된 응답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한반도의 발전을 언급한 답변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C그룹에서 가장 잘 드러났는데,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에 공감하며 별 마찰 없이 토의가 마무리되었다.

〈주요 토의 쟁점〉

통일은 우선 같은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니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좀 더 자주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C-F4).

물론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선 통일이 되면 내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 같고...(C-M1).

내수도 내수지만, 저는 외교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고,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한반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자원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요(C-F3).

저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중국

이 그걸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자원을 남한의 기업들이 개발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C-M2).

그렇죠. 아무래도 통일이 되면 우선 경제적인 이득이 가장 클 것 같아요(C-M4).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통일을 주로 실리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원하는 통일의 시기

연구자 질문: “한반도에서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가. 주요 응답

통일을 원하는 시기에 있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통일이 미래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아직 남한과 북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과, 현재의 시점에서 통일이 될 경우 이후에 발생할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저도 아까 통일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통일이 되면 거의 모든 면에서 통합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

표 6. 그룹 별 반응 빈도 - 원하는 통일의 시기

	원하는 통일의 시기	
	점진적인 통일 선호	조속한 통일 선호
Group A(7명)	○○○○○	○○
Group B(6명)	○○○○○○	○
Group C(8명)	○○○○○	○○

고 혼란만 커질 것 같아요(A-F3).

당장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남한이 많이 희생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기간도 아주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통일이 제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B-M3).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을 원하는 응답은 각 그룹별로 소수 존재하였다. 이들은 지금보다 시간이 더 흐를 경우 남북한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통일 역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응답하였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통일관이 다르듯이, 미래에 나타날 세대들은 지금 저희와 또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통일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더할 거 같아요. 이리다가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될 것 같기도 하구요(A-F1).

당장은 고생하겠지만 같은 민족이고, 정이 많은 민족이니까, 얼마든지 감내 하면서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B-M2).

나. 결과 분석

원하는 통일의 시기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한 결과, 미래에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신의 세대에서는 통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응답이 모든 그룹에 걸쳐 나타났다. 이는 통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드는 부정적인 인식이 솔직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조속한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소수의 학생들은 시간이 더 지나면 한반도에서 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 이들은 현재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감

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앞서 시행한 '통일의 필요성 및 이유'와 관련한 토의 분석과 비교해 보면, 많은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혼란과 비용 등의 실리적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주제에서는 주로 현 시점에서 통일 이후의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상호 간의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각 개인의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토의 주제인 만큼 특별한 합의점이 귀결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속한 통일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조속한 통일을 원한다는 학생들 역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입장 이어서 이들 역시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우려감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의는 A그룹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주요 토의 쟁점〉

사실 통일은 이루는 것은 먼 미래의 일 같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남북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경제적 격차가 많이 완화된 다음에야 이루어졌으면 해요. 지금 당장 통일하면 서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A-M3).

예. 저도 아까 통일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바란다 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통일이 되면 거의 모든 면에서 통합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혼란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A-F3).

저는 그래도 통일은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통일관이 다르듯이, 미래에 나타날 세대들은 지금 저희와 또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통일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더할 거 같아요. 이러다가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될 것 같기도 하구요(A-F1).

그러면 내일 당장 통일이 되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나요?(A-M3)

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조건 손해 보는 일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A-F1).

저는 아무리 그래도 당장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른 두 국가가 하나가 되는 건데...(A-M3)

예, 통일은 좀 나중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A-M2).

(3) 통일 형태의 예측

연구자 질문: “향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나요?”

가. 주요 응답

많은 대학생들은 통일 형태의 예측으로 단계적인 평화적 통일이 아닌 북한의 내부로부터 붕괴가 일어나 통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들은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통일이긴 하지만,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평화적

표 7. 그룹 별 반응 빈도 - 통일 형태의 예측

	통일의 형태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	단계적인 평화통일
Group A(7명)	○○○○○○	○○
Group B(6명)	○○○○	○○
Group C(8명)	○○○○○○○	○○

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보였다.

어쨌든 북한의 체제는 무너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여요(B-F2).

북한이 체제가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으니깐요. 또 남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미워하지 북한 주민들을 미워하진 않으니깐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C-M2).

단계적인 평화적인 통일을 예측한 소수의 대학생들은 통일의 달성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북한이 지금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북한 정권 역시 버티지 못하고 남한과의 통일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B-F3).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 역시 빨라져서 결국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될 것 같아요(C-M3).

나. 결과 분석

통일의 형태 예측과 관련한 본 토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가 비로소 통일의 시점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었으며,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달성되는 평화통일을 예측한 학생들은 소수였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북한 정권이 지금과 같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 평화적인 통일은 요원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들은 북한 정권

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상당한 적의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인터뷰 당시 상당히 나빠져 있던 남북관계, 북한사회의 시장화와 관련된 소문과 '북한붕괴론',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야기된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 주제에 대한 토의에서는 주로 북한정권의 붕괴가 단계적인 평화통일의 추진과정에 앞서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통일 방법이라 여기고 있어 단계적인 평화통일을 예측한 소수의 학생들과 다소 쟁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토의는 C그룹에서 활발하였다.

〈주요 토의 쟁점〉

저는 결국에는 양 국가가 통일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C-M1).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고 보지만, 결국 향후의 통일은 북한의 붕괴로 일어날 것 같아요. 같이 합의를 봐서 통일에 이르는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려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더 빠를 것 같네요(C-F3).

예. 저도 북한이 체제가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으니까요. 또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미워하지 북한 주민들을 미워하진 않으니까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C-M2).

저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 역시 빨라져서 결국 평

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러한 변화가 더 빠를 것 같아요 (C-M3).

글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북한이 그 전에 무너질 것 같아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남한에서도 통일과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C-F3).

예. 저는 일단 북한정권과는 무엇을 같이 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C-F3).

(4) 통일 이후의 변화

연구자 질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가. 주요 응답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크게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예측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많았다. 통일 이후 발생할 부정적인 사회 변화로는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및 남한이 짊어져야 할 희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답변 역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인식이 들 것이고, 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거지가 된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표 8. 그룹 별 반응 빈도 - 통일 이후의 변화

	통일 이후의 사회적 변화	
	부정적인 변화 예측	긍정적인 변화 예측
Group A(7명)	○○○○○	○○○
Group B(6명)	○○○	○○○
Group C(8명)	○○○○○○	○○○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피할 것 같기도 하구요(B-F3).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또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등 국민화 될 것이고, 이러면 통일 이후의 상황이 분단 상황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C-M2).

반면에 통일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는 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가 갖게 되는 국가적 이득을 언급한 답변이 많았으며, 국가의 위상 증가와 경제적 실리 등을 주된 통일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로 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경제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이 북한보다 더 앞서서 상황이니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부담해야 하겠지요.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차차 적응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가 확대되어서 한반도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A-F3).

통일이 되면 한반도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서도 좀 더 발언권이 강해질 것 같아요(B-M3).

나. 결과 분석

많은 학생들은 통일 직후에 많은 혼란 및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남한의 경제적 희생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이 어려울 것임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의 확대나 국가 이미지의 개선 등, 앞서 토의한 통일의 필요성과도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긍정적 변화가 존재할 것이라는 응답이 존재하였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 이후의 변화를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여기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앞서 통일이 점진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던 통일 시기의 예측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실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상호 간에 특별한 쟁점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통일 직후에 발생할 단기적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정리한 통일외교의 이중성을 설명해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B그룹의 토의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주요 토의 쟁점〉

저는 우선 통일이 되면 한반도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서도 좀 더 발언권이 강해질 것 같아요(B-M3).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잘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사실 확실치는 않아 보여요. 일단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B-M1).

예. 우선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인식이 들 것이고, 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거지가 된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피할 것 같기도 하고요 (B-F3).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우리와 가장 통합되기 힘든 국가가 아닐까 생각해요(B-M2).

예. 저도 그건 동의해요. 60년이 넘게 완전히 다른 국가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부작용이 엄청나겠죠. 단기적으로는 감당이 거의 안 될 것 같아요(B-M3).

2) 북한에 대한 인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연구자 질문: “머릿속에서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가. 주요 응답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항에서는 각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북한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과 관련된 응답이 모든 그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10년 발생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주된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예비역 남학생들은 북한과 관련하여 군대에서 받았던 교육이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북한 정권과 군대에 대하여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국가보다는 우리를 위협하는 군사집단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B-M1).

북한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요새 도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협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B-F2).

표 9. 그룹 별 반응 빈도 -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적대적 인식	민족적 인식	기타 인식
Group A(7명)	○○○○	○○	○○
Group B(6명)	○○○○	○○	○
Group C(8명)	○○○○○	○○	○○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여기는 응답과는 달리,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자 동반자로 여긴다는 응답 역시 전 그룹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였다. 또한 한 민족이라는 단순한 응답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현재의 북한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연민이 섞인 응답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애증의 대상 같아요. 말썹이 많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껴안아야 할 한 형제라는 느낌이 들어요(B-M3).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다음으로 들어요. (A-M4)

기타 인식으로는 북한을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로서 바라본 응답과 함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하여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로 여기는 응답들이 존재하였다.

중국하고 러시아에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텐데, 그걸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는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클 것 같아요(A-F3).

나. 결과 분석

북한의 이미지 및 존재 인식에 대한 조사는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즉각적으로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는 개인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질문으로서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주로 느끼고 있는 이미지 및 인식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응답을 정리한 결과 적대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중심이 된 응답과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는 응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기타 인식 역시 각 그룹별로 소수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을 향후 통일의 동반자라는 측면에서 형제이자 동포로 여기는 동반자적 의식과,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 및 외교적 갈등

으로 인하여 형성된 적대적 의식이라는 북한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반된 가치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빈번하게 발생한 북한의 도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북한에 대하여 좀 더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부분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권과 군대를 중심으로 적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은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논의했던 통일의 필요성과 연결지어 분석해 보면, 대학생들은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통일이 되어야 하는 우선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통일이 한국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 사고되는 경향이 있다.

본 주제에서도 각자의 독립된 생각을 질문하는 특징이 강한 만큼, 상호 간에 눈에 띄는 쟁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B그룹의 경우 북한을 적으로 여기는 인식과 같은 민족으로 여기는 상반된 인식이 표출되면서 상호 간에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주요 토의 쟁점〉

저는 역시 북한은 우리의 형제라는 인식이 먼저 들어요(B-M1).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요새 도발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위협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B-F2).

예, 북한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국가보다는 우리를 위협하는 군사집단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B-M1).

그래도 엄연한 하나의 국가이고, 장차 통일의 대상인데 너무 적대적으로만 봐선 안 될 것 같아요(B-M1).

통일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인데 적 대적인 생각이 안들 수가 없죠(B-M1).

결국 애증의 대상 같아요. 말썹이 많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껴안아야 할 한 형제라는 느낌이 들어요(B-M3).

(2) 북한의 변화 여부

연구자 질문: “북한이 이전보다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가. 주요 응답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여기는 응답은 주로 북한의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북한의 암시장이나 외래 물품의 반입, 타국과의 교류 등이 북한의 주민들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북한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위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아래는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 TV나 라디오를 듣는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점점 빨라질 것이라 생각해요(A-F2).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받는 억압도 그에 따라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래가 흔들리면 위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겠죠(B-F1).

표 10. 그룹 별 반응 빈도 - 북한의 변화 여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Group A(7명)	○○○○○	○○○
Group B(6명)	○○○	○○○
Group C(8명)	○○○○○○	○○○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북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 졌다면, 북한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주로 북한 정권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은 변화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독재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통일 역시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 봐요(A-M2).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말짱 도루묵'같은 느낌이 들어요(B-M3).

나. 결과 분석

북한의 변화에 대한 토의 결과, 북한 사회의 하층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응답하였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북한 정권이 현재의 체제와 기득권의 유지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토의 결과는 학생들이 북한의 정권과 인민들을 확연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랜 기간 통치를 지속해온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결국 이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하층으로부터의 변화가 통일과 관련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토의에서는 결과 분석 내용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가 사회의 하층으로부터 촉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에서 일정한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 역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인 가운데, A그룹의 경우 이러한 쟁점을 둘러싸고 상호 간에 활발한 토의가 전개되었다.

〈주요 토의 쟁점〉

위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아래는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 TV나 라디오를 듣는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점점 빨라질 것이라 생각해요(A-F2).

저도 북한의 암시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과의 비공식적 무역이 활발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런 점들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아요(A-F3).

저는 북한정권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A-M1).

그런가요? 북한정권이야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 변화들도 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A-F3).

맞아요. 물론 작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다 무너질 것 같아요(A-M4).

동의해요. 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너지니까, 어떠한 액션은 있을 것 같아요(A-F1).

북한정권이 변화할 수 없는 이유가, 북한 정권은 사실상 독재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 역시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해요(A-M2).

(3)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연구자 질문: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 주요 응답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여기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남북한이 모두 전쟁을 먼저 일으키기 힘든 상황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실리나 명분이 크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뒤에 미국이 있는 한, 북한이 함부로 남침하진 못할 것 같고요. 우리도 먼저 북한을 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B-F2).

동북아의 어떤 국가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에 의한 부분적인 교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요(B-F1).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응답은 각 그룹별

표 11. 그룹 별 반응 빈도 -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전쟁 가능성 낮음	전쟁 가능성 존재함
Group A(7명)	○○○○○○	○○
Group B(6명)	○○○○○	○○
Group C(8명)	○○○○○○○	○○

로 일부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으며, 북한보다는 국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였다. 또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전쟁이 될 것이라 응답하여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 생각에는 북한보다도 중국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더욱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요(B-F3).

북한이나 남한이 한쪽을 침공하는 것은 상상이 잘 안 가요. 하지만 강대국들의 계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여겨져요(A-M2).

나. 결과 분석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면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만 북한과의 부분적 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수 존재하였다.

토의 결과 많은 학생들은 북한을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북한이 먼저 침공을 가해오는 것은 자멸에 가까운 행동이므로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2010년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긴장상황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했고 유사한 도발의 가능성도 상상하게 했지만, 학생들이 이를 전쟁행위로 보거나 남북한 간의 전면전 가능성을 함의하는 사건으로 보게 하지는 않았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은 또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 남한사회의 지배적 분위기와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들었다. 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응답

하였던 학생들 역시 토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부분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북한이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 사이의 국제관계가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대학생들의 인식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에서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에는 구성원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토의는 세 그룹 중 B그룹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주요 토의 쟁점〉

우리나라 뒤에 미국이 있는 한, 북한이 함부로 남침하진 못할 것 같고요. 우리도 먼저 북한을 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B-F2).

제 생각에는 북한보다도 중국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의 다른 국가의 동향을 더욱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요(B-F3).

저는 동북아의 어떤 국가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에 의한 부분적인 교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요(B-F1).

지금은 엄연히 휴전중이잖아요. 우리가 평화에 너무 태연해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서 분명 적이 있고 그 적에 대한 전쟁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B-M3).

물론 부분적인 교전이나 도발은 있겠지만 전면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B-M1).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여겼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이든 남북관계든 비단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B-F3).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제 말씀은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물론 국제관계의 예측이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전에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B-M1).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B-M3).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게끔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B-F2).

네. 저도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전체가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B-F1).

6.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여론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솔직한 의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현재의 청년 세대인 N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오랜 당위성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세대보다 자신의 의식에 솔직하고 기존의 통일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가치관에 익숙한 N세대의 등장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통일과 관련한 당위성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의식은 향후 남한 국민들이 공유하게 될 주된 통일의식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미 상당 부분 기존의 통일 당위성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민족적 감정이 아닌 통일 이후에 있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득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나름의 계산에 기반하여 보다 현실적인 근거를 새로운 통일의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이제 통일은 점차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실리의 차원에서 사고되고 있으며,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인한 한반도의 발전’이라는 담론으로 새로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N세대 대학생들이 통일의 즉각적 실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동반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즉각적 통일이 실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킨 것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남북의 차이가 가져 올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염려에 더하여 2010년 남북한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으로 이어진 것이 통일의 실현을 꺼려지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적대감과 우려가 보다 자기주장에 솔직한 N세대들에게서 강하게 표출되면서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거부감 및 무관심이 증대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통일의식조사에서도 19세~29세 세대별 응답의 주된 특징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일·대북 현안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남한 사회 일반에 대한 무관심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인터뷰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명규 외, 2009:22).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이들이 북한을 민족이라는 카테고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하

고 있으며 단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N세대는 북한정권과 인민을 구분해서 사고하고, 정권은 변화가능성이 없으며 붕괴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터뷰 당시의 지배담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N세대가 성장과정에서 이전 세대에 비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교육을 덜 받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이러한 경험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인터뷰 당시의 상황이 훨씬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도발가능성이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010년의 잦은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N세대는 북한이라는 타자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끼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세대가 실질적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과 동시에 분단의 폐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향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남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이미지가 남북관계 및 심리적 통합 측면에 있어 주된 장애요인이었다면, 현재의 N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및 통일 의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 및 무관심이다. 한민족이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신화가 깨어진 현실에서 북한사회의 부정적 모습이 크게 대두될수록 북한에 대한 무관심 역시 증대되며, 이는 앞으로 남한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도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며 당대의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통일에 대한 또 다른 이중적 의식 또한 통일정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통일 당위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의 인식과 함께 분단으로 인한 폐해, 한반도의 발전과 경제적인 실리 등 통일 편익, 사회 통합의 가능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전망과 관련된 통일 교육 및 대북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통

일의 당위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통일이 가져다주는 실질적 이득이나 통일 이후의 사회상 등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및 정책의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비용, 통일이 가져다주는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이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치로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이를 보다 대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가져다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국민들이 민족적 당위가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서 인식할 때, 이는 더욱 강력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통일의 당위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1월 29일 접수, 2011년 12월 28일 수정, 2011년 12월 30일 채택.

참고문헌

- 권영승, 2011, N세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 권혁범, 2000,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숲.
- 김성재,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현문사.
- 문국현, 2008, 청소년의 대북 및 통일의식 보고서, 2008년 국정감사자료.
- 박길성, 2002, N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정란·정은미·이상신, 2009,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안득기, 2007,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1) 호, 1-28.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병수, 2010,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21(2), 355-388.
- 이수정, 2011,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맡길기,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1월호, 62-78.
- 이창식·김윤정, 2002, N세대가 지각한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163-184.
- 정승호, 2003,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11, 389-413.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s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351-399.

Schuman, Howard and Jacqueline Scott,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A Study on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N-generation University Students in the Global/Multicultural Age: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Young-Seung Kwon* · Soo-Jung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so-called the 'N-generation' in the global/multicultural age. By employing 'focus group interview' as a research method, it examines these students' unification consciousness in context, and the process in which unification discourses are formed. These are difficult to find out through existing researches based on survey.

Discourses of 'unification' as a 'sacred national goal' is losing its hegemony in South Korea especially among young generation.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ew' unification consciousness among them.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m especially because they will develop into the major unification consciousness that South Koreans will share hereafter.

The following are findings of this research.

'N generation' university students of South Korea consider 'unification' more in terms of practical issues, not in terms of a 'historical right' or 'national wish.' Rather, they tend to discuss 'unification' with the issues of 'social conflict,' 'economic gains and losses.' Unification is mostly considered in terms of the idea of profit that brings advantages to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e students are also very negative about the idea of 'rapid unification,' worrying about potential social disorder and economic damages. This signifies increasing repulsion and indifference about 'real unification' among this generation.

Keywords N-generation, university students, unification consciousness, focus group interview

* Joongang Ilbo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North Korean Studies, agysba@gmail.com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thropology, lee.soojung@gmail.com